



신나는 스케이팅 9일 곡성 기차마을에 새롭게 조성된 4계절 스케이트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특수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어등산, 한말 호남의병 중심지”

순천대 조사, 전투지 등 유적 41곳 발견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 일대에 한말(韓末) 호남의병의 중심 근거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산구가 지난해 2월 문화재청의 비지정 문화재 기초조사사업에 선정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 연구원 홍영기 교수)에 어등산 한말 의병 전적지 조사를 의뢰한 결과다. 순천대 측은 광산구 내에서 전투지 11개소, 순국지 3개소, 무기제조지 1개소 등 총 41개소의 한말의병 유적을 발견, 대한제국기인 1907~1909년 어등산을 비롯 광산구 전역이 호남의병의 중심지였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홍 교수는 조사를 통해 광산

구의 3대 동천(洞天)인 대명동천, 석문동천, 용진동천은 학술적으로 더 고찰하고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 영사제, 지어제, 도림사 등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말의병 유적안내관 정비, 문화재·국가현충시설 신청, 의병마을 지정 등 특성화를 통해 한말 어등산 의병의 뜻을 알리고, 계승하도록 권했다. 광산구는 순천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어등산 일대 한말의병 전적지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한말 어등산 의병의 뜻을 기리고 널리 알리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중국산 제설제 환경피해 걱정

구청마다 염화칼슘 뿌려 눈치위

가격부담에 친환경 제설제 꺼려

찾은 폭설과 강추위로 중국산 염화칼슘이 마구 뿌려지고 있다. 환경 피해의 우려가 크지만 지자체들은 어려운 재정 탓에 상대적으로 비싼 친환경 제설제는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주지방조달청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는 최근 감사원과 국토해양부의 친환경 제설제 전환 권고에 따라 2012년도분 계약물량부터 친환경 제설제로 교체하고 있다. 기존의 제설용 염화칼슘과 소금이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자치구에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외면하고 있다. 사람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차량 부식, 환경 피해 주범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설제를 고집하면서 국산 일반제품도 아닌 중국산을 대량 들여오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2012년 염화칼슘 210t을 확보해 지난해 말까지 50t을 사용하고 160t이 남아 있다. 동구가 확보한 염화칼슘은 전체가 중국산이다. 남구는 지난해 염화칼슘 415t을 확보해 201t을 썼다. 전체 415t 가운데 중국산이 100t, 인도네시아산 50t, 중국산 친환경 제설제 40t, 국내산 친환경 제설제 10t 등이다. 서구는 지난해 300t의 염화칼슘을 구입해 150t을 사용한 상태다. 대부분의 제설제가 중국산이기는 마찬가지다. 친환경 제설제는 광주시가 242t을 구입해 동구 17.5t·서구 40t·남구 45t·북구 57.4t·광산구 82t을 각각 지원한 것과 광산구가 자체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 6t 정도에 불과하다. 친환경 제설제를 쉽게 구입하지 못

하는 것은 가격 때문이다. 조달청 구매 단가를 보면 친환경 제설제가 기존 염화칼슘보다 50~7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한 자치구 제설담당 공무원은 “겨울철에는 자주 내리는 눈에 대비해 충분한 양의 제설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친환경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산이라 하더라도 물량 확보가 더욱 중요한 문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중국산 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만큼 친환경제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염화칼슘과 소금은 토양 알칼리화로 인한 가로수 고사나 수질 오염, 차량 및 철재교량 부식에 의한 수명단축, 도로 부식과 파손, 호흡기 질환 유발 등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중국산 염화칼슘의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제품을 친환경 제설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청와대도 공개하는데...새청사 내걸 작품 작가 '쉬쉬'

남구청 ‘밀실행정’ 비판

술집·음식·제과점

폐업신고 쉬워진다

준이나 심사 절차도 알려지지 않은 탓에 ‘밀실 심사’, ‘나눠먹기’에 따른 의혹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남구청사 미술작품 선정위원회 위원인 이정룡 교수의 ‘관공서에 들어가기는 미술품의 작가와 작품 명단을 공개한 선례가 없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올려놓고 있다. 지난해 열렸던 4차례의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남도도 마찬가지로, 작품 가격을 알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서구청과 북구청도 공개하고 있는 항목이다. 일각에서 광주 남구청의 구매의 연한 밀실 행정에 따른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남구청은 지난 8일 오전 10시 미술작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신청사에 내걸릴 5억 상당의 작품 69점(회화 66점·서예 2점·미디어아트 1점)을 선정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39분

달돋이 05시 45분
달질 16시 06분

매서운 한파

기온 떨어지며 추위 건강과 시설물 관리 유의하세요.

광주	맑음	-7/2℃
목포	맑음	-5/1℃
여수	맑음	-5/2℃
나주	맑음	-9/2℃
완도	구름맑음	-4/2℃
구례	맑음	-7/2℃
강진	구름맑음	-5/2℃
해남	맑음	-4/2℃
장흥	구름맑음	-5/2℃
순천	구름맑음	-8/2℃
영광	구름맑음	-10/0℃
진도	구름맑음	-3/2℃
전주	맑음	-10/1℃
군산	맑음	-10/-1℃
남원	맑음	-12/1℃
옥산도	구름맑음	0/2℃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주간날씨

날짜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날씨						
최저/최고	-6/4	-2/6	-3/6	-2/6	-3/7	-1/5

제강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매우높음

낮음

전남 학부모 64% “장만채 교육 공감”

부정적 의견 14% 그쳐

전남지역 학부모 3명 중 2명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교육정책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남도교육청 산하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한걸리서치에 의뢰해 지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전남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학부모 의견조사’ 결과, 64.2%가 장만채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공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는 응답이 9.9%, ‘방향을 공감하나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38.6%, ‘방향은 공감하나 천천히 개혁해야 한다’는 15.7% 등이다. 반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답변은 14.8%에 그쳤다.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72.9%(매우만족 19.6%, 조금만족 53.3%)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불만족은 24.2%였다.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학교시설·교육환경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86.5%으로 가장 높았다. /박정욱기자 jwpark@r

광주서부 교육장 공모

16~17일 접수

광주시교육청은 9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교장 또는 교육전문직(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 2년 이상에, 잔여 정년이 2년 이상 남아야 한

다. 임기는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이다. 오는 16~17일 이틀간 접수하며, 24일 서류·발표심사와 면접심사, 상호토론 등을 거쳐 교육장공모심사위원회가 2명을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최종 임용한다. 심사의 공정·투명성을 위해 교원·학부모·지역주민의 참관도 허용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참례 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침기름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이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익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일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해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너무 뿌리과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헌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CTV 헬로비전

www.cjhelovision.com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볼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한 걸리자! 헬로셋

헬로tv

헬로넷

헬로폰

=

SAVE 최대 56%

헬로셋

1588-3450

디지털 방송은 헬로tv로!

※위의 할인율은 가입 조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